

# 복지요결

2020년 9월 2일

복지요결과 부록, 복지야성 복지소학 복지논어 복지인권 복지방세 복지경영, 기타 참고 자료를 <http://welfare.or.kr>에 한글과 PDF 파일로 공유합니다.

머리말 .....	3	복지요결 응용 편	
사람과 사회 .....	10	복지관 사회사업 .....	114
사회사업 개념 .....	14	아동센터 사회사업 .....	141
사회사업 가치 .....	22	시설 사회사업 .....	161
사회사업 이상 .....	26	사회사업 조사 .....	207
사회사업 철학 .....	32	사회사업 기획 .....	215
사회사업 주안점 .....	38	사회사업 기록 .....	221
사회사업 방법 .....	50	사회사업 평가 .....	224
사회사업가 .....	64	사례관리 사회사업 .....	232
맺음말 .....	70	사회사업 실습지도 .....	251
복지요결 외편 .....	72	적용 .....	256

사람과 사회

---

사회사업

## 머리말

사회사업 바르게 하고 싶습니다.

사회사업 잘하고 싶습니다.

근본 있는 사회사업가이고 싶습니다.

사회사업이 어떤 일이며 무슨 가치가 있는지 의미도 모르고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며 복지의 바탕이 무엇인지 원리도 모르고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상과 철학도 없이 달음질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해야 사회사업 바르게 했다 잘했다 할 것인지 기준도 없이 그저 열심히 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 동안은 남들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할 수도 있겠으나 오래 하지는 못할 일입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마냥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본이 있어야 합니다.

근본을 좇아 행하고 근본으로써 성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복지요결은 사회사업을 근본으로부터 이야기하는 사회사업 원론입니다.

## 1. 연구 방법

### 1) 순서

사회사업 방법은 어떤 변수들의 함수값입니다.  $y=f(x_1, x_2, \dots, x_n)$ 에서 종속변수  $y$ 에 해당합니다.

복지요결 연구는 사회사업 방법을 좌우하는 독립변수  $x$ 들을 선정하고 각 변수의 값을 밝혀서 종속변수  $y$ 의 값을 구하는 일입니다. 단, 사회사업가로서 어찌해 볼 수 있겠다 싶은 변수만 다룹니다.

복지요결은 사회사업 ‘방법’이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에 따라 정해지고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은 사람과 사회에 대한 생각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이러므로 먼저 사람과 사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그로써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을 밝혀 사회사업 방법을 도출합니다.

### 2) 열쇠 말

농사의 씨앗과 땅처럼 사람과 사회를 사회사업 핵심 원소로 봅니다.

복지요결은 이를 당사자와 지역사회라 하고 사회사업 온갖 주제를 대개 이 두 가지 열쇠 말로 풀이합니다.

### 3) 연역법

사람다움 사회다움으로부터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과 방법을 끌어냅니다.

사람다움 사회다움 관점에서 개념을 정의하고, 사람다움 사회다움에서 가치를 찾고, 사람다움 사회다움을 지향하는 이상과 철학을 세우고, 사람다움 사회다움을 살리는 주안점과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 4) 시선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바라보고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가리키는 말이 되게 이야기합니다.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라는 동일한 실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주제에 따라 묘사하는 면이 다를 뿐입니다.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와 ‘복지사업’ - 어느 쪽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며 어느 쪽을 가리키는 말이 되게 하는가? 참조: 19쪽 ‘복지사업’ 사회사업 온갖 이론과 실체가 대개 이로써 좌우됩니다. 사회사업 만능 독법, 만능 해법이라 할 만합니다.

#### 5) 실용성

① 실무에 닿게, 실무를 규정 통제 평가하는 효용이 있게 구체화합니다.

② 사회사업에 비추어 그림직하고 사회사업가가 어찌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하는 일이나 역량이 제각각이니 어지간한 수준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 6) 정합성

앞뒤가 들어맞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다움 사회다움,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과 방법, 사회사업 실체가 가지런히 들어맞게, 서로 모순이 없을 뿐 아니라 따로 놀지 않게 합니다.

#### ※ 정명

① 이름은 실제에 부합하게 그림직한 이름을 붙입니다.

② 개념은 이름과 실제에 부합하게, 주어와 술어가 호응하는 문장으로 똑떨어지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이나 개념에 본디 그러한 건 없습니다. 이름 붙이기 나름이고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흔히 쓰는 이름이나 개념이 그림직하면 그것을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안을 선택하거나 새로 만듭니다.

이와 같이 이름과 개념을 바르게 함이 정명이고 그대로 행하여 명실상부케 함이 정명의 완성입니다. 참조 : 복지논어 '정명'

## 7) 다중 원천

- ① 기도와 묵상으로 영감을 얻습니다.
- ② 고전에서 근본을 찾습니다.
- ③ 사회사업 문헌을 참고합니다.
- ④ 이성으로써 궁리하고 따져 봅니다.
- ⑤ 경험에서 배우고 경험에 비추어 따져 봅니다.

## 8) 주관성

사회사업을 다 볼 수 없고 그 본질이나 실상을 그대로 그려 낼 수도 없습니다. 주관에 따라 선택 해석 설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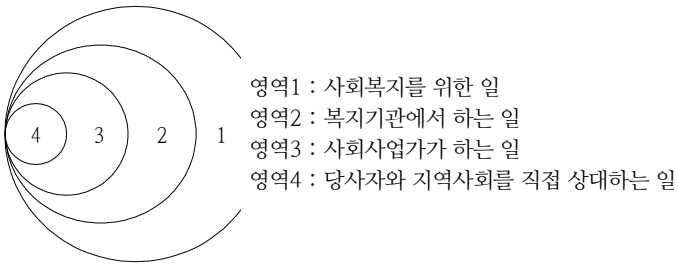
마땅하다 바람직하다 그림직하다 자연스럽다 평범하다 하는 판단도 주관에 달렸습니다.

이러므로 주관을 충실히 담아내려 합니다. 다만

- ① 한계를 의식하고 여지를 둡니다. 지금 내 생각이 이렇 뿐이라고, 달라질 수 있다고, 저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 ② 다른 사람 보기에다 그림직하겠는지 헤아립니다.
- ③ 스스로 묻고 답하고 비판하고 반론하며 다듬어 갑니다. 동료들과 나누며 다듬어 갑니다.

## 2. 범위와 한계

### 1) 범위



사회사업가가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직접 상대하여 돕는 일 가운데 일 부에 해당합니다.

정책과 행정, 전문 상담 치료, 긴급구호나 위기개입, 보육이나 케어, 학 대나 폭력에 대응하는 일, 경쟁을 돕는 일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 2) 한계

사회사업에 관한 한 어느 설이든 한계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통할 수도 있고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한 가지만 고집한다면 온갖 부작용이 어지러이 일어날 겁니다.

복지요결도 그러합니다. 사람 사안 상황에 맞게 변통할 줄 모른다면 복지요결을 버리느니만 못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은 어느 설이든 교조처럼 따를 게 아닙니다. 저마다 자유롭게 사유하며 스스로 마땅히 여기는 바에 따라 행할 일입니다.

참조 : 265쪽 '원칙과 변통' | 복지논어 '무적무막, 시중지의'

### 3. 줄거리

#### 1) 사람다움 사회다움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사람 사는 사회는 약자도 살 만해야 하고 약자와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2) 사회사업 개념 :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3) 사회사업 가치 : 사회사업 핵심 가치는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입니다.

4) 사회사업 이상 : 사회사업은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누구나 정붙이고 살 만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5) 사회사업 철학 : 사회사업은 복지가 보이지 않게 하고 사회 속에 흐르게 하며 바탕이 살게 하고 보편적이게 합니다.

6) 사회사업 주안점 :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생태, 강점, 관계에 특히 중점을 두어 살핍니다.

7) 사회사업 방법 : 사회사업 방법은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기입니다.

8) 사회사업가 : 사회사업가는 주선하고 거들어 주는 사람, 얻게 하고 주게 하는 사람입니다.



뒷이야기 : 근본이 없으면

사회사업 바르게 하려면 근본을 세우고 근본을 좇아 행하고 근본으로써 성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본을 세우지 않고도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근본을 좇아 행하지 않거나 근본으로써 성찰하지 않고 그저 달음질하면 어찌될까요?

사람다움을 생각지 않고도 사람답게 도울 수 있을까요?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며 복지의 바탕이 무엇인지 모르면 어디에 힘쓸까요? 미봉 땀질이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되지 않을까요?

이상과 철학이 없으면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이며,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회사업 개념이 없으면 ‘사회사업’ 하고 있는지 어찌 알며, 개념 없는 일이라 한들 어찌겠습니까?

정체성이 없으면 ‘제구실’ 하고 있는지 어찌 알며, 그야말로 아무거나 하는 사람으로 보고 그렇게 부린들 어찌겠습니까?

근본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사업 그렇게 하는 까닭, 자기 실천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난데없고 정치 없어 끝내 종잡을 수 없는 일이 되고 말 겁니다.

참조 : 73쪽 ‘전공자라면 더욱’

## 사람과 사회

사람답게 돕고 싶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 같게 하고 싶습니다.

어찌해야 사람답다 하며 사람 사는 사회 같다 할 수 있을까요?

사회사업은

이 ‘사람다움 사회다움’을 생각하는 데서 비롯합니다.

참조 : 72쪽 ‘사회사업학’ | 복지소학 11쪽 ‘격물치지’

## 1. 사람다움

1)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는 대로 받거나 시키는 대로 할 뿐이면 이름만 사람이기 쉽습니다. 이리므로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돕습니다.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묻거나 의논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고 복지를 이루어 주다 보면 하릴없이 그저 주는 대로 받거나 시키는 대로 하기 쉽습니다.

2)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사람 사이에 어울려 살기에 인간입니다. 혼자서는 인간이라 할 수 없고 존재 가치나 삶의 의미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리므로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와 둘레 사람이 함께하게 돕습니다.

당사자와 둘레 사람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묻거나 의논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고 복지를 이루어 주다 보면 둘레 사람이 멀어지기 쉽습니다. 심하면 무심해집니다. 당사자가 둘레 사람으로부터 소외되기 쉽습니다. 심하면 잊혀 갑니다.

참조 : 복지팡세 32쪽 ‘사람의 본연’ | 복지소학 27쪽 ‘어른다움’

## 2. 사회다움

1) 사람 사는 사회는 약자도 살 만해야 하고 약자와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① 약자도 살 만한 사회는,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등을 약자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이러므로 약자도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지역사회 일반 복지수단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약자 전용 수단으로써 복지를 이루어 주다 보면 약자가 사회로부터 분리 소외되기 쉽습니다.

②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는, 사람들이 ‘제 마당 제 삶터에서’ 약자를 도우며 함께 사는 사회입니다.

이러므로 약자의 복지를 이루는 데 사람들이 제 마당 제 삶터에서 함께 하거나 돕게 주선합니다. ‘와서 도와주세요.’ 하다 보면 제 마당 제 삶터에서 약자를 도울 일은커녕 만날 일조차 없게 될지 모릅니다.

2) 사람 사는 사회는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 사람 사는 것 같다 함은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므로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을 살려 그 이웃 인정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복지를 이루는 일로 지역사회에 두루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이 줄어들수록 더욱 그리합니다. 그래야 이웃 인정이 삽니다. 이웃 인정 약해졌다고 대신하여 복지를 이루어 주다 보면 이웃 인정 아주 없어지고 결국 인공복지로 연명하게 될지 모릅니다.

참조 : 74쪽 ‘인공복지’

## 뒷이야기

### 1.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는 그 사회 여느 사람이나 다른 계층 집단에 비해 약하거나 불리한 쪽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는 약자도 살 만해야 하고 약자와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에서 약자가 그러합니다.

사회사업 주 대상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라고 다 사회사업 도움을 받는 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만 사회사업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 2. 상황적 약자

상황적 약자는 어떤 상황에서 약한 사람입니다.

사회사업 대상은 엄밀히 말하자면 상황적 약자입니다. 약한 상황 ‘그때 그 일에서’ 사회사업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상황적 약자는 약한 상황 ‘그때 그 일에서’ 약자일 뿐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약자는 아닙니다.

사회사업은 그때 그 일에서의 약점 문제 장애 따위로써 사람 자체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른 때 다른 일에서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시 약자인 것처럼 온갖 일에 개입 보호 관리하려 들지 않습니다.

약자가 아닌 상황, 그런 일까지 도와주려 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동의나 요청이 없다면 더욱 삼갑니다.

참조 : 77쪽 ‘약자론’

## 사회사업 개념

사회사업 개념은 ‘사회사업은 어떤 일인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사회사업에 본디 그렇다 할 개념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정의할 뿐입니다. 다만 제대로 정의하려면

첫째, 사회사업 아닌 다른 일과 구별되게 해야 합니다. 사회사업만 그렇다거나 특히 사회사업이 그렇다 할 속성을 밝히는 겁니다.

둘째, 사회사업을 어지간히 아우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회사업은 대개 그렇다 할 속성을 밝히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른 일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일도 복지에 기여합니다. 대상도 소재도 방법도 사회사업만 그렇다 할 것이 없습니다.

사회사업을 포괄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의 개념으로 아우르기에는 그 실재가 너무 다양합니다.

이러므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정의하든 그 관점에서 그 사람 생각이 그렇다는 것일 뿐, 그것이 곧 사회사업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만 사회사업이라거나 다른 건 사회사업이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지만 개념을 정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념도 없이 실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회사업 사회사업답게 하려면 사회사업이 무엇이며 어찌해야 사회사업답다 할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 1. 근본 관점 사회사업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사람다움 사회다움’ 관점에서 보는 사회사업이 이리합니다.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게 돕고 지역사회가 함께하게 돕는 겁니다. 복지를 이룰 뿐 아니라 더불어 살게 돕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답고 그래야 사람 사는 사회 같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1) 당사자와 지역사회

당사자가 이루게 도와야 사회사업 근본에 들어맞습니다. 다만 다른 일도 흔히 당사자가 이루게 하니 ‘당사자’만으로는 사회사업이라 하기에 부족합니다. 지역사회도 함께하게 도와야 사회사업답습니다.

### 2) 복지와 공생

복지를 빼고서는 사회사업을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일도 복지에 기여하니 ‘복지’만으로는 사회사업이라 하기에 부족합니다. 더불어 살게 도와야 사회사업답습니다.

참조 : 81쪽 ‘사회사업 본질’

요컨대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복지에서 비롯하고 지역사회와 공생으로 사회사업다워집니다.

※ 복지요결에서 사회사업은 주로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을 가리킵니다.

다만 그냥 ‘복지를 이루는 일’ 또는 ‘사회사업가나 복지기관이 하는 일’을 가리키는 대목도 있습니다. 참조 : 5쪽 ‘실용성’, 22쪽 ‘사회사업 가치’

## 2. 생태 관점 사회사업

사회사업은 사이 좋게 하는 일입니다.

당사자와 돌래 사람 사이, 약자와 일반 복지수단 사이,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의 생태를 좋게 하는 일입니다. 참조 : 38쪽 '생태'

## 3. 사회 관점 사회사업

사회사업은 사회적으로 복지를 이루고 사회적 복지를 이루는 사회적 사업입니다.

사업은 사업인데 수식어 '사회'가 방법과 목표를 특징짓는 사업, 곧 사업의 방법과 목표가 '사회적'인 사업입니다.

1) 사회적 방법 : 사회 속에서 사회로써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당사자와 돌래 사람 사이에서,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에서, 그 관계를 살려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지역사회의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들 속에서,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2) 사회적 목표 : 사회 속에 복지가 흐르게 합니다.

당사자와 돌래 사람 사이에,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에, 지역사회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들 속에, 복지가 흐르게 합니다.

근본 관점 사회사업, 생태 관점 사회사업, 사회 관점 사회사업, 어느 것이나 그 실상은 같습니다.

참조 : 79쪽 '사회사업이 무엇입니까?'



## 뒷이야기

### 1. 당사자

복지를 이루는 데 사회사업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러므로 ‘복지 당사자’라 밝혀 쓰기도 하지만 대개는 그냥 ‘당사자’라 합니다.

문맥에 따라 아무개, 사람, 이용자 참가자 입주자, 아동 장애인 노인, 수급자, 어려운 사람, 약자, 지역 주민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대상자?

이렇게 부를 때도 있지만 대상화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 꺼립니다.

사업에는 대상자가 있으니 대상자라는 말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상화가 문제입니다.

당사자의 복지인데 당사자에게 묻거나 의논하지 않고 당사자가 하게 돕지 않는 겁니다.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사업가가 주가 되고 당사자는 객이 되어 버리는 방식, 당사자의 복지인데 사회사업가가 계획 통제하는 방식, 이렇게 사람을 대상화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대상자라 하면 대상화하기 쉽습니다. 대상화해도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대상자라는 용어를 꺼립니다.

## 2. 지역사회

### 1) 당사자의 지역사회

#### ① 사람

당사자의 인간관계나 일상생활로 자연스럽게 접촉 상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이 그러하고 이용하는 복지수단에 관련된 사람도 그러합니다.

둘레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복지요결에서는 복지수단에 관련된 사람까지 아우를 때는 주로 ‘지역사회’라고 합니다.

#### ② 공간

당사자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로 자주 다니는 곳, 또는 당사자가 우리 동네·마을·지역이라고 여기는 곳입니다.

### 2) 기관의 지역사회

#### ① 공간

기관이 속한 행정 구역 또는 조례 정관 따위로 정한 사업 구역입니다. 흔히 ‘지역’이라 합니다. 동네나 마을이라 부름직한 곳도 있습니다.

#### ② 사람

기관이 자연스럽게 접촉 상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역에 살고 있거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그러합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동네 사람이나 마을 사람 또는 지역 주민이라 합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지역의 이력저런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등에 관련된 사람입니다.

참조 : 82쪽 ‘당사자의 복지를 이루는 데 함께할 지역사회’

### 3. 복지

#### 1) 복지와 사회복지

복지는 ‘복스러운 것 또는 복스러운 경지’이고, 사회복지지는 ‘사회의 복스러운 것 또는 복스러운 경지’입니다.

배고플 때 밥은 복스러운 것, 배부름은 복스러운 경지입니다.

복지나 사회복지지를 더 구체화할 수 있을지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논함 같고 천하 경륜을 논함 같아서 사회사업가로서는 무모하거나 부질없어 보입니다.

#### 2) 복지와 복지사업

① 복지는 복지사업으로써 ‘얻는 것 또는 되는 것’이고, 복지사업은 복지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다만 복지는 복지사업, 사회복지, 사회사업, 복지 기능, 복지수단 따위를 통칭 또는 약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②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와 대비할 때 복지사업은 ‘복지기관의 일, 복지를 제공하거나 이루어 주는 일’을 가리킵니다.

사회사업은 복지를 이루는 일이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에게 합니다. 복지사업은 서류에 실적으로 꾸며 넣는 일에 불과합니다.

#### 3) 사회사업과 사회복지

사회사업은 사회복지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사회복지지는 사회사업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사회사업은 식사를 돕는 일이고 사회복지지는 배부름입니다. 참조 : 83쪽 ‘사회사업 유사 용어 - 사회복지’

#### 4) 복지사업과 사회사업

① 복지사업은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 복지를 이루는 사업입니다.  
복지라는 목표만 있고 방법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② 사회사업도 복지사업입니다.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 복지를 이루는 사업입니다.

다만 사회사업답다 할 방법과 목표가 따로 있습니다.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게 돕고 지역사회가 함께하게 돕습니다. 복지를 이룰 뿐 아니라 더불어 살게 돕습니다.

이로써 사회사업을 여느 복지사업과 얼마쯤 구별할 수 있습니다.

#### 5) 사회적 복지와 비사회적 복지

① 사회적 복지

사회 속에서 얻거나 이루는 복지, 사회 속에 흐르는 복지입니다.

사회적 복지는 관계 복지입니다. 당사자와 돌래 사람 사이,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 그 관계로써 얻거나 이루는 복지입니다.

② 비사회적 복지

복지기관에서 제공하거나 이루어 주는 복지입니다.

비사회적 복지라도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사안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비사회적 복지를 위주로 하다 보면 사회적 복지를 해치기 쉽습니다.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할 일입니다.

## 6) 소극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

① 소극적 복지는 ‘나쁜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것 또는 나쁘지 않은 경지’입니다.

소극적 복지사업은 소극적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소극적 복지사업은 당사자의 격을 떨어뜨리기 쉽습니다. 문제 있거나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 그런 인상을 확대 재생산하기도 합니다. 사회사업가가 높고 당사자가 낮은 형세이기 쉽습니다.

특히 사회사업가가 복지를 제공하거나 이루어 줄 때, 사회사업가 쪽 강점으로써 문제를 다룰 때, 이렇게 될 공산이 큼니다.

소극적 복지사업은 나쁜 것을 다스리는 일 곧 나쁜 것을 보완하거나 예방 억지 해소 완화하는 일인데, 나쁜 것을 굳히거나 키우기도 하고 좋은 것을 해치기도 합니다.

② 적극적 복지는 ‘좋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 또는 좋은 경지’입니다.

적극적 복지사업은 적극적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적극적 복지사업은 당사자의 격을 높이고 좋은 인상을 갖게 합니다. 당사자가 당사자 쪽 강점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도우면 그러합니다.

적극적 복지사업은 좋은 것을 살리는 일 곧 좋은 것을 회복 개발하고 유지 생동시키며 개선 강화하는 일인데, 나쁜 것을 다스리는 효과 곧 나쁜 것을 보완하거나 예방 억지 해소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 복지요결에서 ‘복지’는 대개 소극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복지를 이룬다 할 때 복지가 그러합니다.

다만 ‘복지’가 적극적 복지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와 복지를 함께 이야기할 때 복지가 더러 그러합니다.

# 사회사업 가치와 윤리

## 1. 사회사업 가치

가치는 ‘유용하거나 바람직한 속성’입니다.

사회사업 가치는 복지를 이루는 데 유용하거나 바람직한 속성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속성 가운데 그렇다 할 속성입니다.

그 핵심은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입니다.

당사자의 자주성은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는 속성입니다. 지금 이 복지뿐 아니라 다른 때 다른 복지를 이루는 데도 유용하고 바람직한 속성입니다.

지역사회 공생성은 더불어 사는 속성입니다. 이 사람의 복지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복지를 이루는 데도 유용하고 바람직한 속성입니다.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을 사회사업 핵심 가치라 함은

1)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는 약자도 살 만해야 하고 약자와 더불어 살아야 하며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명실상부케 하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의 삶 그 실질이 자주성이고 지역사회 사람살이 그 실질이 공생성입니다. 자주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삶이라 할 수 없고 공생하지 않으면 지역사회 사람살이라 할 수 없습니다.

## 2. 사회사업 윤리

사회사업 윤리는 사회사업하는 데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주로 실천 윤리를 가리키고 넓게는 직업윤리와 일반 윤리까지 아우릅니다.

### 1) 실천 윤리

돕는 행위에서의 윤리입니다. 그 준거는 사회사업 가치입니다.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을 살려 복지를 이루게 돕는 겁니다. 적어도 해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답고 사람 사는 사회 같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다운 곧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이고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사람답게 도우려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회사업 실천 윤리의 본질입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 행위가 윤리적인지 성찰하는 물음,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을 살려 복지를 이루게 돕는가?’ 이는 곧 ‘사람으로 보는가? 사람답게 도우려 하는가?’ 함과 같습니다.

### 2) 직업윤리

직업이나 직장에서의 윤리입니다. 그 준거는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이나 기관의 윤리 규정입니다.

### 3) 일반 윤리

직업이나 직장 밖에서의 사회 윤리 또는 개인 윤리입니다. 그 준거는 사회의 통념이나 법, 개인의 양심이나 신앙입니다.

직업윤리와 일반 윤리는 사회사업 실천 윤리의 기초입니다. 다만 그 내용을 사회사업론으로 구체화하기가 어렵습니다.

## 뒷이야기

### 1. 주체 의식과 자주성, 공동체 의식과共生성

#### 1) 주체 의식과 자주성

주체 의식은 내면의 속성이고 자주성은 외면의 속성입니다.

주체 의식은 자기 복지라고 여기고 주관하려는 의식입니다. 자기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려는 생각, 주인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주성은 자주하는 속성 곧 실제로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는 속성입니다.

주체성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共生성과 짝지어 말할 때는 자주성이라고 합니다. ‘자주하다’와 ‘共生하다’에 ‘성’을 붙여 자주성과 共生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체하다’와 ‘共生하다’는 짝이 될 수 없으므로 주체성과 共生성을 짝지어 말하지 않습니다.

#### 2) 공동체 의식과 共生성

공동체 의식은 내면의 속성이고 共生성은 외면의 속성입니다.

공동체 의식은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생각, 더불어 살려는 마음입니다. 共生성은 共生하는 속성 곧 실제로 더불어 사는 속성입니다.

공동체성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자주성과 짝지어 말할 때는 共生성이라고 합니다. ‘자주하다’와 ‘공동체하다’가 짝이 될 수 없으므로 자주성과 공동체성을 짝지어 말하지 않습니다.



## 2. 자주성과 공생성의 결정 요인

### 1) 자주성의 핵심 요소는 ‘주체 의식과 역량’입니다.

주체 의식이 있어야 자주하며 역량이 있어야 자주하는 일이 많고 수준 또한 높습니다.

다만 사회사업 실제에서 자주성은 당사자의 주체 의식이나 역량보다 사회사업 방식에 의해 더 좌우됩니다.

주체 의식이 강하고 역량이 있어도, 묻거나 의논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으면 자주성이 낮아집니다. 주체 의식이 약하고 역량이 부족해도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자주성이 높아집니다.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복지를 이루게 돕다 보면 당사자의 주체 의식과 역량이 회복 개발 유지 개선 강화됩니다.

### 2) 공생성의 핵심 요소는 ‘공동체 의식과 관계’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공생하며 관계가 있어야 공생하는 일이 많고 수준 또한 높습니다.

다만 사회사업 실제에서 공생성은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이나 관계보다 사회사업 방식에 의해 더 좌우됩니다.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관계가 있어도, 묻거나 의논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으면 공생성이 낮아집니다. 공동체 의식이나 관계가 약해도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공생성이 높아집니다.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복지를 이루게 돕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과 관계가 회복 개발 유지 개선 강화됩니다.

## 사회사업 이상

이상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 또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이상은 실무를 규정 통제 평가하는 최상의 기준입니다.

이상이 없거나 모호하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고 어느 쪽으로는 가면 안 되는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는지 빛나가는지 역행하는지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은 엄중한 현실입니다.

이상과 다르게 어찌하겠다거나 어찌하라는 건 그야말로 위험한 생각이  
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상을 거슬러 시세나 명리 따위를 좇아간다면 이는 진짜 현실 무서운  
줄 모르는 무모한 행위입니다. 참조 : 복지야성 65쪽 '현실'

이상을 좇아 행할지라도 바르게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상도 없이 행한  
다면 어찌되겠습니까?

시설이 좋고 자원이 많고 기술이 좋을수록 해로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할수록 그만큼 더 빠르게 반복지로 치달을지 모릅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 1.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사회사업은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약자도 살 만한 사회는,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등을 약자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는, 사람들이 '제 마당 제 샅터에서' 약자를 도우며 함께 사는 사회입니다.

사회사업 이상은 약자 복지 별천지를 만드는 쪽보다 사회 속에 복지가 흐르게 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 2. 정붙이고 살 만한 사회

사회사업은 누구나 정붙이고 살 만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정붙이고 살 만한 사회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 살 만한 사회입니다. 불편하거나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혼자서는 아닌 세상입니다.

사회사업 이상은 문제를 없애는 쪽보다 이웃과 인정을 살리는 쪽에 가깝습니다.

※ 문제, 없애고 싶습니다.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이상을 말한다는 게 공허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던지 아니하고서는 이상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를 없애는 일이

1) 꼭 좋을 거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개인의 삶도 사회의 사람살이도 이런저런 문제와 함께 이루어지는 생활의 총체인데 문제가 없으면 좋기만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2) 자신도 없습니다. 세상 문제나 지역사회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한 사람의 한 가지 문제도 감당키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3) 이상으로서는 만족할 수준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당사자에게는 절실한 일이고 단위 사업에는 중요한 목표일 수 있지만 사회사업 이상으로 삼기에는 너무 낮아 보입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가로서 꿈꾸는 세상은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그래도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 살 만한 곳, 고운 정이든 미운 정이든 정붙이고 살 만한 곳, 사람 냄새 나는 곳, 인간적인 세상입니다.

## 뒷이야기

### 1. 발전

사회사업 이상은 이루고 또 이루어도 가고 또 가도 끝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발전을 생각합니다. 나아지거나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야 발전했다 발전하고 있다 할 수 있을까요?

소박해짐이 발전입니다.

소박해야 뜻이 맑아지고 인정이 자랍니다.

평범한 일상에 녹아들이 발전입니다.

평범한 일상이어야 평안하고 오래갑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은

평범한 일상으로 소박하게 이루고 누리는 복지를 지향합니다.

뜻은 사람다움의 알맹이이고 인정은 사회다움의 알맹이인데 대개 소박해야 뜻이 맑아지고 소박한 데서 인정이 자랍니다. 이러므로 소박해짐이 발전이라 합니다. 참조 : 복지소학 53쪽 '발전'

가고 또 가서 더할 나위 없는 경지에 이르면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꾸준히 이어갈 겁니다. 이러므로 평범한 일상에 녹아들이 발전이라 합니다. 참조 : 복지소학 9쪽 '지어지신'

진미는 물처럼 담박하고 훌륭한 문장은 평범할 뿐이라 합니다.

사회사업도 복지도 그럴 겁니다.

참조 : 87쪽 '사회사업 고수' | 복지소학 11쪽 '지극한 경지의 복지'

## 2. 사회사업 이상 연구 방법

### 1) 실용성

① 근본을 밝혀 그로써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본 없는 이상엔 믿음과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상에 대한 믿음과 열정이 없으면 이상과 실무는 따로 놀게 됩니다.

② 실무에 닿게 구체화합니다.

추상적이면 적용하기 어려워서 결국 이상과 실무가 따로 놀게 됩니다.

③ 보통의 사회사업가가 언제 어디서 어떤 사업으로든 얼마쯤 이룰 수 있을 만한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높으면 지치기 쉽습니다.

이루고 또 이루어도 여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만한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 2) 당사자, 사람다움

① 사회사업 이상은 특정 당사자를 넘어 사회적 약자 일반에 해당하는 속성,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속성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당사자’ 대신 ‘약자’와 ‘누구나’로 이야기합니다.

② 사회사업에서 사람다움은 사회사업 도움으로 어떤 복지를 이루는 과정 ‘그때 그 일에서’ 사람답다 할 속성입니다.

사회사업 이상은 ‘과정’ 너머의 지향이라 ‘복지를 이루는 과정에서의 사람다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회사업 도움으로 복지를 이루는 ‘그때 그 일’ 밖에서 사람답게 사는 문제는 사회사업 소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정 너머의 사람다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조 : 86쪽 ‘자주성의 한계’

### 3. 사회사업의 가치

1) 약자와의 공생성은 정의로운 사회의 핵심 속성입니다. 사회정의의 본질입니다.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라야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약자도 살 만하게 하고 약자와 더불어 살게 하는 일, 사회사업은 사람 사는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빈부 격차와 불평등이 심한 시대, 약자를 소외시키고 힘들게 하는 세상에 더욱 절실해지는 정의, 그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2) 이웃과 인정은 인간적 사람살이의 핵심 요소입니다. 인간성의 본질입니다.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야 인간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웃과 인정을 살리는 일, 사회사업은 인간 세상을 지키는 일입니다. 인간적 사람살이를 잃어 가고 인간 소외의 그림자가 짙어 가는 시대에 더욱 절실해지는 인간성, 그 인간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회사업의 이런 가치에 대한 의식과 믿음이 사회사업하는 동기이고 저력입니다. 참조 : 복지팡세 27쪽 '사회사업의 가치'

※

세상은 정의를 버리고 인간성을 삼키며 빠르게 역행하는 형세입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정의를 붙잡고 비인간화에 맞서야 하지 않을까요?

임무가 중하고 길이 멎니다. 어찌될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사람 사는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인간성을 살리는 일, 이것이 마땅한 일이고 옳은 길이라는 의식과 믿음으로 나아갈 따름입니다.

참조 : 복지팡세 29쪽 '저항 운동과 남은 자' | 복지소학 67쪽 '임중도원

## 사회사업 철학

철학은 어떤 일을 옳게 행하려는 정신 또는 그 일의 원칙으로 삼는 생각입니다.

철학한다 함은 그 일의 정도를 탐구하거나 정도로 행하는지 성찰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옳게 행하려는 정신이 있으면 그 일의 정도를 탐구하고 정도로 행하는지 성찰하게 됩니다. 정도를 탐구하고 정도로 행하는지 성찰하다 보면 그 일의 원칙으로 삼는 생각이 정립됩니다.

사회사업하는 데도 옳은 길 ‘정도’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사회사업 철학은 그 길에 대한 생각입니다.

사회사업 옳게 행하려는 정신에서 사회사업 정도를 탐구하고 정도로 행하는지 성찰하여 사회사업 원칙으로 삼게 된 생각입니다.

복지요결은 이런 개념으로 사회사업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철학이 없으면 어찌 바르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시세에 쫓기거나 명리를 좇아 이리저리 흔들릴 겁니다. 바르게 가고 있는지 확신은커녕 확인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철학이 분명하고 그 철학대로 바르게 가고 있음을 확인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진되지 않을 저력도 타성에 젖지 않을 열정도 이런 확인과 확신에서 나옵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 1. 보이지 않게 합니다.

1) 복지를 이루는 행위가 ‘복지사업’으로 드러나 보이게 하면  
사회사업가는 빛나는데 당사자는 구차해 보이기 쉽습니다. 당사자가  
자존심 체면 품위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2) 복지를 이루는 행위가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이게 하면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빛나고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칭찬 감사 공이 돌  
아갑니다. 자존심 체면 품위가 살고 당당해집니다.

이러므로 복지를 이루는 행위가 ‘복지사업’으로 보이지 않게 합니다.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로 보이게, 실제로 ‘당사자의 삶, 지  
역사회 사람살이’이게,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합니다.

참조 : 19쪽 ‘복지사업’, 56쪽 ‘사회사업 방법의 첫째 조건’

복지사업으로 보이는가?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로 보이는  
가? 이는 복지를 이루는 주체, 수단, 자리에 따라 좌우됩니다.

① 주체 : 사회사업가가 이루어 주면 복지사업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이루면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로 보입  
니다.

② 수단·자원 : 사회사업가 쪽의 것으로써 이루면 복지사업으로 보이  
기 쉽습니다. 당사자나 지역의 것으로써 이루면 당사자의 삶, 지  
역사회 사람살이로 보입니다.

③ 자리·관계 : 제 마당 제 삶터 밖에서 후원자나 봉사자로 도우면 복지  
사업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제 마당 제 삶터에서 보통의 사회적 관계로  
도우면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로 보입니다.

## 2. 사회 속에 흐르게 합니다.

1) 우물과 시내는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땅을 살리고 못 생명을 기릅니다. 사람들이 어울립니다. 소식 지혜 위로 격려 자원을 나눕니다. 놀거나 쉬기도 합니다. 물뿐 아니라 모래와 돌도 얻습니다.

그런데 저수지에 물을 모아서 수도를 통해 급수하니 우물이 마르고 시내가 죽어 갑니다. 그 좋은 기능 다 사라집니다.

깨끗한 물 좋은 물 공급한다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언제나 안심하고 마음껏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개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수도를 놓아 누구는 생색내고 누구는 돈을 벌지만 누구는 종속됩니다. 낭비와 분쟁을 낳기도 합니다.

2) 지역사회 이웃과 인정도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이것저것 나누거나 빌려 주거나 함께하거나 도와주며 온갖 복지를 이루고 누립니다.

그런데 복지 저수지 복지 수도로써 복지를 이루어 주다 보면, 이웃 우물이 마르고 인정 시내가 죽어 갑니다. 이웃 우물과 인정 시내에 있던 온갖 복지 기능이 사라집니다.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이 약해집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문제로 복지 저수지 복지 수도에 더 자주 더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누구는 생색내고 누구는 돈을 벌지만 누구는 구차해집니다. 욕심 낭비 오용 남용 악용 시기 원망 분노 불신 다툼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복지 저수지 복지 수도에 공들이기보다 지역사회 복지 우물 복지 시내 살리는 데 주력합니다. 무너진 우물 고쳐 짓거나 새로 만들고 이리저리 물길을 내어 복지가 지역사회에 두루 스미어 샘솟고 굽이 굽이 돌아 흐르게 합니다.

### 3. 바탕이 살게 합니다.

1) 문제나 욕구에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이 문제만 아니라 다른 때 다른 문제나 욕구, 다른 사람의 복지까지 두루 대응할 수 있는 근본책이 필요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바탕을 살리는 겁니다.

① 자주할 수 있는 주체 의식과 역량,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회성과 관계망, 이것이 당사자의 복지 바탕입니다.

②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 특히 약자와의 관계와 소통, 이것이 지역사회의 복지 바탕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바탕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세우고 지탱하며 문제의 근원을 막고 온갖 복지를 이루는 근본책입니다.

2)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바탕을 놓아두고 사회사업가 쪽의 지식 기술 재화로써 문제나 욕구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① 당사자는 주체 의식과 역량이 약해지고 자기 삶을 잃어 갑니다. 갈수록 구차해집니다. 사회성과 관계망이 줄어들고 지지체계가 허술해집니다. 갈수록 취약해집니다.

② 지역사회는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이 줄어들고 정겨운 사람살이를 잃어 갑니다. 갈수록 삭막해집니다.

③ 사회사업가는 부담이 늘고 재미와 감동을 잃어 갑니다.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이러므로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바탕을 살려 복지를 이루게 돕되 사회사업가 쪽의 것으로써 한다면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 4. 보편적이게 합니다.

약자도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일반 복지수단을 이용하여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갈수록 더 다양한 일반 복지수단을 더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돕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는 약자도 살 만해야 한다고,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일반 복지수단을 약자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일반 복지수단을 이용하여 복지를 이루도록 당사자와 해당 복지수단 쪽 사람들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일반 복지수단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 일반 복지수단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차별받기 쉬운 사람을 도울 때 더욱 그리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사회가, 일반 복지수단 쪽 사람들이, 일반 복지수단을 약자도 이용할 수 있게 설계하거나 보완하게 됩니다.

복지기관의 수단, 약자 전용 복지수단, 그거라도 있으니 고맙고 그것마저 없으면 아쉬울 겁니다.

다만 약자 전용 복지수단으로써 돕다 보면 자칫 약자가 사회에서 분리 소외되기 쉽습니다. 사회는 약자를 외면 배제 차별하기 쉽고 심하면 낙인찍어 무시 폄하하거나 혐오하기도 합니다.

약자 전용 복지수단을 활용한다면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참조 : 88쪽 '보편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수단'

평범하게 합니다.

그 사회 그 연령대의 여느 사람처럼 복지를 이루고 누리게 돕습니다.  
복지를 이루고 누리는 환경 수단 방법 형식 조건 절차 수준 따위를 별  
나게 하지 않습니다.

시설 입주자도 되도록 시설 바깥 여느 사람처럼 생활하게 돕습니다.  
주거 식사 복식 단장, 하루 일과를 비롯한 생활 흐름, 인간관계와 사람  
구실, 이성 교제, 호칭, 학교 행사, 교우 관계, 방학활동, 직장생활 휴가  
애경사 회식, 신앙생활 문화생활 취미활동, 운동 독서, 생일잔치 나들  
이 여행, 미용 목욕, 집안일 따위를 여느 사람처럼 하게 돕습니다.

별나게 하면, 문제 있거나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런 인  
상을 만들거나 굳히거나 확대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의 자아상,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구실의 격을 떨  
어뜨리기 쉽습니다. 참조 : 193쪽 ‘구실의 격, SRV’

이러므로 되도록 평범하게 돕습니다.

여느 사람과 다르게 할 수밖에 없거나 다르게 하는 편이 낫겠다 싶으면  
그렇게 돕되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복지를 보편적이게 하고 평범하게 해야 한다는 철학은 특히 장애인이  
나 시설 입주자에게 절실한 ‘반차별 철학’입니다.

## 사회사업 주안점

주안점은 특히 중점을 두어 살피는 점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

사회사업 주안점은 사람다움 사회다움,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에 따라 도우려 할 때 특히 중점을 두어 살피게 되는 점입니다.

### 1. 생태

생태는 사는 모습입니다. 사회사업이 중점을 두어 살피는 생태는 사람 사이 생태 ‘사회 생태’입니다. 참조 : 92쪽 ‘생태복지와 복지생태’

#### 1) 당사자와 돌레 사람 사이의 생태

사회사업은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와 돌레 사람이 함께하게 돕습니다. 이로써 당사자와 돌레 사람 사이의 생태가 좋아지게 합니다.

#### 2) 약자와 일반 복지수단 사이의 생태

사회사업은 약자도 일반 복지수단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이로써 약자와 일반 복지수단 쪽 사람들 사이의 생태가 좋아지게 합니다.

#### 3)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의 생태

사회사업은 지역사회 사람들이 이런저런 복지 활동으로 어울리게 돕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함께 이루고 누리며 서로 돕고 나누는 ‘정겨운 사람살이 생태’를 살립니다.

## 2. 강점

강점은 복지를 이루는 데 이롭거나 쓸모 있는 것입니다.

### 1) 당사자 쪽 강점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경험 지식 재주 물질, 희망 의지 저력, 좋아하는 일, 잘했거나 잘할 수 있는 일 따위가 당사자 쪽 강점에 속합니다.

사회사업은 당사자 쪽 강점에 주목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강점을 우선 주로 활용하여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 2) 사회사업가 쪽 강점

사회사업가의 지식 기술, 복지기관의 예산 장비 시설 서비스 프로그램, 사회사업가가 개발하는 후원금품과 봉사자와 외부 지원 따위가 사회사업가 쪽 강점에 속합니다.

사회사업가 쪽 강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여 복지를 이루어 주다 보면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을 해치기 쉽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바탕이 약해지고 평지풍파 일어나기도 합니다.

참조 : 35쪽 '복지 바탕', 67쪽 '평지풍파'

사회사업가 쪽 강점으로 복지를 이루어 주면 당사자가 낮은 형세이기 쉽습니다. 주는 대로 받거나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 쉽습니다. 애 같은 노릇, 환자 노릇 하기 쉽고 심하면 거지 꼴 되기도 합니다.

참조 : 96쪽 '오버파워먼트' | 복지야성 22쪽 '불평등한 관계'

이러므로 사회사업가 쪽 강점 활용을 삼갑니다. 활용한다면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당사자가 활용하게 합니다.

### 3. 관계

1) 관계는 ‘사람다움 사회다움’의 핵심 요소입니다.

2) 당사자의 인간관계와 지역사회 이웃 관계는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세우고 지탱하는 근본 바탕입니다.

당사자의 인간관계는 지금 이 일뿐 아니라 다른 때 다른 일까지 대응할 수 있는 바탕이고, 지역사회 이웃 관계는 이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도울 수 있는 바탕입니다.

3) 빈약한 관계는 온갖 문제의 근원이고, 좋은 관계는 온갖 복지의 바탕입니다. 참조 : 복지소학 19쪽 ‘망기원 치기본’ | 복지야성 50쪽 ‘근본책’

“사람 사이에 관계가 빈약하거나 부적절하여 약자가 소외되고 가난 질병 노화나 기능 손상이 문제가 되고, 폭력 왕따 도박을 낚고 이런저런 사회문제를 키우는 건 아닐까요?”

여기 이 사람의 어려움 그 이면에, 오늘 이 사람의 불행 그 바탕에, 관계 문제가 있음을 봅니다. 관계 문제는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내일의 어려움에도 뿌리가 닿아 있음을 봅니다.

사회사업이 다루는 문제의 근원이 관계에 있고, 사회사업이 이루려는 복지의 바탕도 관계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만으로 문제나 복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없으나 관계야말로 문제나 복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참조 : 복지소학 22쪽 ‘견’

4) 사회사업은 관계를 돕는 일이고 관계로써 돕는 일입니다.

사람의 복 가운데 사회사업 핵심 소관은 선린의 복 ‘인복’입니다. 사회의 바람직한 속성 가운데 사회사업 핵심 소관은 더불어 사는 속성 ‘공생성’입니다. 사회복지 가운데 사회사업 핵심 소관은 사회 속에 흐르



는 복지 ‘사회적 복지’입니다. 복지사업 가운데 사회사업 핵심 소관은 사회적으로 복지를 이루는 사업 ‘사회적 사업’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사회사업은 관계를 돕는 일이고 관계로써 돕는 일입니다. 참조 : 복지야성 48쪽 ‘사회사업 본분’

이러므로 사회사업은 관계에 주목합니다.

당사자의 인간관계와 지역사회 이웃 관계에 주목합니다. 관계를 살려 복지를 이루게 돕고, 복지를 이루는 일로 관계를 살립니다.

참조 : 98쪽 ‘관계 영역’, 103쪽 ‘관계의 양면’

#### ※ 생태와 관계

생태를 ‘관계와 상호작용’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별 관계가 없다’, ‘관계가 좋다’에서처럼 관계를 상호작용의 양이나 질로써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태가 관계를, 관계가 생태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쓰일 뿐 아니라 실체가 동일하거나 겹쳐서 구분하기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생태가 아니고서는 사회사업을 이야기할 수 없고 관계 또한 사회사업론에서 생태의 하위 요소로만 다루기에는 ‘너무’ 중요하기에 둘 다 표제 항목으로 올려 각각 설명했습니다.

얼마쯤 구분하자면,

생태는 ‘상호작용하며 사는 모습’에 가깝고, 관계는 ‘둘레 사람 내지 아는 사람의 존재 또는 그런 사람과의 연결’쯤 됩니다.

## 뒷이야기

### 1. 생태 관점 문제와 해결책

문제는 이쪽과 저쪽 사이의 좋지 않은 생태 현상 곧 ‘이쪽과 저쪽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불편 고통 갈등 따위의 어려움’입니다.

문제를 생태 현상으로 보면 해결 경로를 여러 갈래로 잡을 수 있습니다.

- ① 당사자 쪽에 우선 또는 주로 개입할 수도 있고 환경 쪽에 우선 또는 주로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 ② 약점을 다스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강점을 살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 : 44쪽 ‘강점과 약점’
- ③ 역량을 높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욕구를 낮추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④ 공유영역과 양쪽 가운데, 공유영역의 문제 현상에 직접 대응할 수도 있고 양쪽의 바탕을 살리는 데 주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개입하든 사회사업은 결국 이쪽과 저쪽 사이의 생태를 좋게 하는 일입니다. 이쪽과 저쪽이 잘 어울리게 하는 일입니다.

참조 : 16쪽 ‘생태 관점 사회사업’, 89쪽 ‘이념과 관점’, 90쪽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

## 2. 생태와 안전장치

### 1) 생태 체계의 원리

생태 체계의 어느 한 부분에 일어난 변화는 다른 부분에 변화를 일으키고 결국 전체 생태 체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생태 체계에 개입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릅니다.

필요성이나 효과나 장점만 내세워 추진할 일이 아닙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라고 다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 2) 사회사업의 안전장치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생태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신중히 개입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그 평범한 일상으로 소박하게 이루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사업의 안전장치입니다.

복지를 이루는 주체 수단 자원을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생태 안에서 찾는 겁니다. 그 밖의 인력 수단 자원이 꼭 있어야 한다면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찾아 활용하게 돕습니다.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이렇게 하는 편이 부작용이 덜할 뿐 아니라 수월하고 효율적이고 평안하고 오래갑니다. 이렇게 하면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에 잘 들어맞습니다.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잘 세울 수 있습니다.

### 3. 강점과 약점, 장점과 단점

#### 1) 강점과 약점

사전에서는 강점을 '남보다 우세하거나 더 뛰어난 점'이라 하고, 약점을 '남에게 뒤떨어지는 점'이라 하지만 사회사업은 다른 사람과 비교 하길 꺼립니다.

사회사업에서 강점은 '복지를 이루는 데 이롭거나 쓸모 있는 것'입니다. 자원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구분하자면, '강점과 자원'이라 할 때 강점은 주로 정신적 심리적 지적 기술적 사회적인 것을 가리키고 자원은 주로 물질적 물리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약점은 문제에 취약한 점, 문제를 야기 유지 악화하는 조건입니다. 약점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약점과 문제를 통용하곤 합니다.

강점 여부는 이루려는 복지에 달렸고 약점 여부는 다루려는 문제에 달렸습니다.

#### 2) 장점과 단점

장점은 좋은 점이나 잘하는 점, 어떤 가치관이나 눈높이에서 그렇다고 보는 점입니다. 사회사업에서는 장점을 강점으로 활용하는 일이 많아 장점과 강점을 통용하곤 합니다.

단점은 좋지 않은 점 또는 못하는 점, 어떤 가치관이나 눈높이에서 그렇다고 보는 점입니다. 단점과 약점도 통용하곤 합니다. 흔히 약점이 될 만한 것을 단점으로 보기 때문이고 실제로 단점이 약점이 되는 일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장점과 단점을 가르는 기준은 보는 사람의 가치관이나 눈높이입니다. 좋다거나 잘한다고 보면 장점이고, 좋지 않다거나 못한다고 보면 단점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 4. 직접 강점과 간접 강점

### 1) 직접 강점

문제와 직접 상관있어 보이는 강점입니다.

소극적 복지사업이 대개 그러합니다.

술 중독증, 우울증, 치매 증상, 주의 산만, 도전행동, 도벽, 왕따, 폭력, 위생 문제, 학습 부진, 실직, 경제적 어려움 따위의 문제를 보면 떠오르는 사업들, 이런 문제에 직접 대응하는 사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접 강점은 문제를 두드러지게 합니다. 문제를 굳히거나 키우고 좋은 것을 해치기도 합니다. 낙인을 만들거나 확대 재생산하기도 합니다.

### 2) 간접 강점

문제와 직접 상관없어 보이는 강점입니다.

적극적 복지사업이 대개 그러합니다.

① 둘레 사람과 함께하는 놀이, 여행, 취미활동, 동아리 활동, 요리, 식사, 다과, 배우기, 만들기, 집들이...

② 지역사회 봉사활동, 복지기관 행사 지원, 사회사업가 도와주기...

③ 어른, 부모, 자식, 친척, 친구, 동료, 이웃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거나 하면 좋을 일

이런 일은 술 중독증, 게임 중독증, 우울증, 치매 증상, 주의 산만, 도전행동, 도벽, 왕따, 폭력, 위생 문제, 질병, 비만, 학습 부진, 실직, 경제적 어려움 따위의 문제와 상관없어 보이는데 문제를 해소 완화하거나 문제를 감당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조 : 복지소학 25쪽 '낙이망우'

## 5. 대안 강점

어떤 일에 맞는 강점이 없거나 부족할 때, 기존 강점 활용의 부작용이 우려될 때, 새로운 강점 대안 강점을 개발합니다.

### 1) 적극적 복지사업을 벌입니다.

당면 문제와 상관없이 보이지만 그 문제에 효과가 있겠다 싶은 강점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로써 이루는 적극적 복지가, 그것을 이루고 누리는 데서 생기는 주체 의식과 역량, 사회성과 관계망, 기쁨 재미 보람 감동 따위가, 문제를 해소 완화하거나 문제의 영향을 희석 상쇄하여 살 만하게 해 줍니다.

### 2)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합니다.

① 당사자에게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다 보면 당사자에게 새로운 강점이 생겨납니다.

인격적으로 귀하게 존중받는 경험, 주체로서 무엇인가 이루어 내는 성취감, 자신감, 자존감이 생깁니다. 주체 의식과 역량, 사회성과 관계망이 살아납니다. 이런 것이 자기 삶을 살아가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어려움에 대처하는 저력이 되고 복지를 이루는 바탕이 됩니다.

② 지역사회에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다 보면 지역사회에 새로운 강점이 생겨납니다.

남을 돕는 경험, 그로써 느끼는 기쁨 재미 보람 감동, 사람 사는 맛이 생겨납니다. 약자를 이해하게 되고 함께하거나 돕는 요령이 생깁니다. 공동체 의식이 살아나고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이 살아납니다. 이런 것이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아가는 데 강점이 됩니다. 약자도 살 만하고 누구나 정붙이고 살 만한 기반이 됩니다.

## 6. 문제를 다루어야 할 때

1) 약점을 다스리기보다 강점을 살리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 : 42쪽 '생태 관점 해결책', 95쪽 '강점 관점?'

2) 어떤 문제는 건드리면 덧납니다. 자존심 분위기 관계를 해칩니다. 어떤 문제는 대응할수록 커지거나 다져지거나 교묘해집니다.

이런 문제는 짐짓 모른 채하고 간접 강점 곧 문제와 상관없어 보이는데 문제에 효과가 있겠다 싶은 적극적 복지사업을 벌이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 : 45쪽 '간접 강점', 156쪽 '문제를 따돌리기'

3) 어떤 문제는 누가 다루어도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붙들고 씨름 해 봤자 해결하지 못한 채 부담감이나 무력감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어렵다는 것을 당사자도 압니다. 그래도 이야기하는 것은 '나 너무 힘들다, 내 이야기 좀 들어 주면 좋겠다, 내 맘 좀 알아주면 좋겠다, 누군가 좀 함께 있어 주면 좋겠다.' 이런 뜻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쪼잖은 기법 지식 정보 따위로 분석 상담 조언하려 들면 어찌 될까요? 그저 이야기를 들어 주거나 처지 심정 노력을 알아주거나 얼마쯤 함께 있어 주기, 이쯤이 이런 문제를 다루는 최선일 수 있습니다.

4) 문제만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힘듭니다. 만성이 된 문제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탈출 환기 충전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문제와 상관없는 일,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 재미있거나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로써 잠시나마 숨 돌리고 웃고 즐기다 보면, 인정받고 성취감 자존감을 느끼면, 문제에 초연해지거나 견딜 만하게 되기도 합니다. 문제를 다룰 힘과 의지, 희망과 용기, 둘레 사람과 자원이 생기기도 합니다.

5) 문헌을 찾아보거나 두루 묻고 의논하다 보면 좋은 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비슷한 문제를 얼마쯤 해결한 사례가 있을지 모릅니다. 똑같은 문제는 아니어도 응용의 실마리를 찾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본분과 정체성, 역량과 기회비용을 헤아립니다. 그 방법을 배워서 직접 활용함이 좋을지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내려놓는 편이 나올지 분별하는 겁니다. 참조 : 복지야성 51쪽 '상담 치료와 사회사업'

6) 어떤 문제는 사회사업가 쪽에 원인이 얼마쯤 있을지 모릅니다. 돕는 환경 내용 방법 태도 따위에 대한 도전행동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헤아려 알맞게 조치할 일입니다.

7) 어떤 사람은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낙인 눈총 구박 미움 잔소리 멀리서 천대를 받아 왔을지 모릅니다.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시달렸을지 모릅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문제나 질병 장애 따위로 동일시되고 그렇게 불렸을지 모릅니다. 숨실 곳조차 없을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또 문제를 보고 문제를 이야기하면 어찌될까요?  
도와주려고 그런다지만, 문제 나름이고 이야기하기 나름이지만...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어제 오늘도 문제를 보고 문제를 이야기하면, 당사자도 가족도 힘듭니다. 비참하고 죄송하고 숨막힙니다. 더러는 죽고 싶을 만큼...

그냥 사람으로 보고 다른 면도 봐 주면 좋겠습니다.

기뻐할 일 감사할 일을 찾고 만들고 이야기하는 데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로써 웃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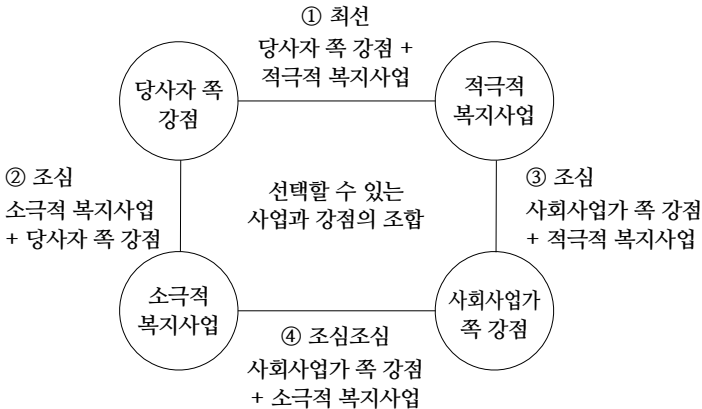
강점과 가능성을 찾아 좋아하는 일, 가치 있는 일, 인정 존중받을 일을 하게 세워 주면 좋겠습니다. 그로써 문제의 영향을 희석 상쇄하여 문제가 있어도 살 만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참조 : 97쪽 '문제에 대한 인식'



## 7. 일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적극적 복지사업을 위주로 하고 당사자 쪽 강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게 돕습니다. 참조 : 21쪽 ‘적극적 복지사업’, 39쪽 ‘당사자 쪽 강점’



1) 당사자 쪽 ‘강점’으로 적극적 복지사업을 벌입니다. 또는 적극적 복지사업을 벌이되 ‘당사자 쪽’ 강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게 돕습니다. 문제를 다룰 때도 되도록 이렇게 합니다.

2) 당사자의 ‘문제’로 소극적 복지사업을 하더라도 ‘당사자 쪽’ 강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돕습니다.

3) 사회사업가 쪽 강점으로는 적극적 복지사업이라도 조심합니다.

4) 소극적 복지사업을 벌여 사회사업가 쪽 강점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사회사업가 쪽 강점으로 소극적 복지사업을 벌이기는 더욱 조심합니다.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참조 : 21쪽 ‘소극적 복지사업의 부작용’, 39쪽 ‘사회사업가 쪽 강점의 부작용’

## 사회사업 방법

사회사업 방법은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기입니다.

사회사업은 대개 이렇게만 해도 잘되고 이렇게 해야 잘됩니다.

1) 이렇게 하면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 그대로 됩니다.

- ①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됩니다.
- ②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을 살려 복지를 이루게 됩니다.
- ③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 정붙이고 살 만한 사회가 얼마쯤 이루어집니다.
- ④ 복지를 이루는 행위가 복지사업으로 보이지 않고 복지가 지역사회에 흐르게 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바탕이 살고 지역사회의 복지수단이 보편적 수단으로 변화해 갑니다.
- 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생태, 강점, 관계가 살아납니다.

2) 이렇게 하면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세우게 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빛나고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칭찬 감사 공이 돌아 갑니다. 참조 : 225쪽 ‘평가’

3) 이렇게 하면 사회사업이 수월하고 편안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니 사회사업가가 하는 일은 주로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는 일에 기록이나 행정 사무를 더할 뿐입니다. 참조 : 7쪽 ‘적용 범위와 예외’

## 1. 인사

### 1) 당사자에게 인사합니다.

당사자의 곳에 찾아가 인사합니다.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여 돌려 사람에게도 인사합니다.

사람 사안 상황 나뉘었지만 사회사업은 대개 이렇게 함이 좋습니다.

인사하다 보면 ‘사람’이 보입니다. 할 일이 보이고 살려 쓸 강점이 보입니다. 잘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 2) 지역사회에 인사합니다.

맡은 사업이나 기관과 관계있는 사람부터 찾아다니며 인사합니다.

인사하다 보면 사람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판세를 알게 되고 지역 정서와 문화를 알게 되고 지역에서 처신할 바를 알게 됩니다. 살려 쓸 강점이 보이고 하고 싶은 일이 그려집니다.

인사만 잘해도 사회사업은 반을 넘습니다.

① 인사를 받으면 어떻게든 도와주려 합니다. 이해 옹호 협력 늘어나고 오해 비난 견제 떨어집니다.

② 인사 다니면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바탕이 살고 이런저런 복지가 이루어집니다. 인사 자체가 복지가 되기도 합니다.

③ 인사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과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게 되는 것이 사회사업 실마리이고 밑천입니다. 지혜 열정 희망 용기 저력 자신감 여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 신입 전입은 인사 다니기 좋은 명분입니다. 한두 달쯤 인사만 다녀도 좋겠습니다. 새로운 당사자를 돕게 될 때, 부서나 업무가 바뀔 때도 인사 다니기 좋은 기회입니다.

## 2.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

### 1) 묻기

#### ① 잘 알고 대답하게 묻습니다.

어떤 일은 잘 모르면 대답하기 어렵거나 대답이 부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 내실이 있게 양질의 대답을 얻으려면 그 일의 내용과 방법 조건 절차 따위를 파악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가운데 선택하게 하기도 합니다. 두루 알아보고 검토하고 궁리해 보게 합니다. 더러는 둘레 사람과 의논해 보게 합니다.

#### ② 희망과 강점을 이야기하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지 희망이나 구상을 묻습니다. 어떻게 해 왔는지 묻고 살려 쓸 강점과 자원, 함께하거나 도와줄 사람을 묻습니다.

잘했거나 좋았던 일, 자궁 자부하는 것, 고마운 일 고마운 사람, 잘하고 싶은 마음, 가진 것,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을 이야기하게 묻습니다. 참조 : 210쪽 '문제나 욕구를 물으면'

#### ③ 당사자가 능동적 주체이게 묻습니다.

당사자가 묻고 답하게 하는 겁니다.

집단 활동이나 행사를 계획할 때 기획단 같은 당사자 조직을 만들어 당사자들이 두루 알아보고 의논하여 계획하게 합니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사회사업가가 계획할 것처럼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잘 알고 대답하게, 희망과 강점을 이야기하게, 당사자가 능동적 주체이게, 함이 잘 묻는 겁니다.

두루 알아보고 검토 궁리하고 의논해 보게 함이 잘 묻는 겁니다.

## 2) 의논하기

당사자나 지역사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그저 따를 수는 없습니다.

사회사업 근본과 현실 곧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 기관의 정책과 형편, 가용 자원과 기회비용, 사회사업가의 처지와 역량, 권한과 책임, 당사자나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따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사업은 그저 묻기만 하지 않고 또한 의논합니다.

적극 권하거나 말리기도 하고 변론하거나 설득하기도 합니다. 다만 비판 간섭 훈계 지시 통제로 느낄 수 있는 표현은 삼갑니다.

참조 : 104쪽 ‘자기 결정권’

### ※ 당사자와 의견이 다를 때

① 다른 의견을 내세우거나 당사자의 의견과 다르게 도와야 할 만큼 당위성이나 실익이 있는지, 그럴 만한 관계인지, 헤아립니다.

② 당위성이나 실익이 충분하다면, 그럴 만한 관계라면,

사회사업가의 의견에 대해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해 주거나 근거 자료를 제공하거나 두루 알아보게 돕습니다. 당사자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합니다. 당사자가 수긍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사회사업가의 의견대로 합니다.

③ 당위성과 실익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럴 만한 관계가 아니라면, 조심스럽게 절충안을 제시하며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마저 안 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일단 당사자의 의견을 따릅니다.

④ 이 과정을 이야기체로 자세히 기록하여 적절한 때에 당사자에게 보여 줍니다. 참조 : 221쪽 ‘사회사업 이야기’ | 구슬 카페 글쓰기 [165](#)번 글

지역사회에 대하여도 이와 같이 합니다.

### 3) 부탁하기

#### ① 당사자에게 부탁하기

첫째, 당사자가 하게 부탁드립니다.

어려워 보이면 과정을 세분하거나 단계를 나누어 우선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부탁드립니다. 본을 보여 주고 같이 해 본 뒤에 다시 부탁하기도 합니다.

둘째, 당사자 혼자 할 수 없으면 같이 합니다.

셋째, 대신 해 준다면 당사자가 알고 동의하거나 요청하는 ‘당사자의 일’이게, 당사자의 일에 심부름하는 모양새이게 합니다.

결국 다 해 주게 되더라도 그래도 당사자의 일로 여기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합니다.

#### ② 지역사회에 부탁하기

첫째, 당사자의 인간관계나 일상생활로 자연스럽게 접촉 상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드립니다. 참조 : 82쪽 ‘그 밖의 사람에게는’

둘째,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김에 같이 하거나 조금 더하게 부탁드립니다.

셋째,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평안하고 오래갑니다. 그래야 저마다 제자리에 충실할 수 있고 사람살이 바탕이 튼실해지고 복지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지역사회에 부탁하는 일도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되도록 당사자가 하게 돕습니다. 당사자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돕고 나머지는 같이 하거나 심부름하듯 대신 해 줍니다.

당사자 모르게, 당사자의 동의나 요청 없이,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역사회에 부탁함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렇게 하는 편이 좋은지 헤아려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 3. 감사

1) 감사는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의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는 감사로써 완성됩니다. 감사를 잘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2) 감사는 잘했다고 고맙다고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① 잘했거나 고마운 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함이 좋습니다.

② 소박하게 표현합니다. 소박하다면 식사나 다과 대접도 좋고 선물도 괜찮겠습니다. ‘이야기’를 담은 엽서 한 장으로도 족할 겁니다.

③ 어른에게는 간접 표현이 좋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어른을 높이려는 마음에서 그리하는 겁니다. 참조 : 복지논어 ‘술이-32’

④ 둘레 사람에게 알려 주어 둘레 사람이 이야기하게 하는 우회 표현도 좋습니다. 당사자와 둘레 사람 사이가 좋아집니다.

⑤ 당사자가 감사하게 돕습니다. 인상이 좋아지고 관계도 좋아집니다.

3) 감사는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공을 알아주는 행위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공을 돌리는 겁니다.

감사는 서로 할 일이지만 당사자와 지역사회 쪽에 돌리는 감사가 많아야 사회사업 잘했다 할 수 있습니다. 참조 : 225쪽 ‘평가’

감사만 잘해도 사회사업은 반을 넘습니다.

감사하면 긍정 강화가 일어납니다. 또 하게 되고 더 하게 됩니다. 복지를 이루는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행위가 갈수록 능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사회사업가의 일도 갈수록 수월해지고 편안해집니다.

※ 이직할 때 두루 감사합니다. 부서나 업무가 바뀔 때도 그리합니다.

## 뒷이야기

### 1. 사회사업 방법의 조건

1) 당사자가 빛나고 당사자에게 칭찬 감사 공이 돌아가는 방법, 당사자가 자존심 체면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가 그러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당사자가 복지를 이루니 당사자가 빛나고 당사자에게 칭찬 감사 공이 돌아갑니다. 당사자가 자존심 체면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참조 : 복지야성 54쪽 ‘내가 도움을 받는다면’

2) 사회사업가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방법 곧 수월하고 재미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가 그러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니 수월하고 재미있습니다.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사는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그 모습에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3) 한두 가지 이야기로 몽똥그리고 한두 마디 자기 말로 바꾸어 기억하곤 합니다. 복잡하면 일단 제쳐두거나 입력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간략한 방법을 생각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가 그러합니다.

간략합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적용해도 좋습니다. 사회사업은 대개 이렇게만 해도 잘되고 이렇게 해야 잘됩니다.



4) 좋은 뜻으로 돕는다지만 약인지 독인지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므로 뒷일을 생각합니다. 안전장치를 생각합니다. 부작용이 없거나 적어 보이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가 그러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참조 : 43쪽 ‘생태와 안전장치’

5) 나무를 잘 기르는 사람은 나무의 본성을 헤아려 나무가 그 본성을 이루게 할 뿐이라 합니다.

훌륭한 목수는 나무가 자란 환경, 나무의 성질, 나무의 생김새, 나무의 빛깔과 결을 살펴 그 자연을 따를 뿐이라 합니다.

사회사업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복지 본성, 사람 사는 사회의 복지 본연, 그 본성과 본연을 살리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기계를 덜 쓰고 인위를 덜 가하고, 소박하고 단순하게, 되도록 자연스럽게 복지를 이루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가 그러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본성과 본연을 살립니다. 소박 단순하여 자연에 가깝습니다. 자연스러운 사람살이로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참조 : 복지소학 11쪽 ‘복지의 본연’ | 복지야성 53쪽 ‘자연주의 사회사업’

## 2. 당사자 중심, 지역사회 중심

### 1) 당사자의 곳에서, 당사자로써, 당사자의 삶이게

- ① 당사자의 삶터에서, 당사자의 실제 생활 속에서,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 ②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합니다. 당사자의 것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여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 ③ 복지를 이루는 행위가 당사자의 삶이게 합니다. ‘내 일이다. 내가 했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합니다.

### 2)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로써, 지역사회 사람살이이게

- ①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에서, 지역사회 일반 복지수단 속에서,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 ② 지역사회가 함께하여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 ③ 복지를 이루는 행위가 ‘지역사회 사람살이’이게 합니다. ‘우리 일이다, 우리가 했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합니다.

사회사업 방법을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 방법은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인데, 이는 ‘당사자의 곳에서 당사자로써 당사자의 삶이게 하기,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로써 지역사회 사람살이이게 하기’와 실체가 같습니다.

### 3. 약자일수록

약자일수록 더 예를 갖추어 더 정성스럽게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합니다.

어린이나 지적 약자나 자폐성 약자, 치매 증상이나 술기운이 있는 사람, 귀 어둡거나 어눌한 사람, 전신 마비 따위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1) 예를 갖추어 정성스럽게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면, 압니다. 오래 도움을 받다 보면 느느니 눈치입니다. 약자일수록 더 예민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2) 예를 갖추어 정성스럽게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면, 자아상과 자존감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언행에 미치는 영향도 큼니다. 약자일수록 사회사업가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어린이나 지적 약자는 더욱 그러합니다. 특히 지적 약자 시설에서는 사회사업가의 언행이 입주자에게 곧잘 복사됩니다.

3) 예를 갖추어 정성스럽게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면, 다른 사람들도 당사자에게 그렇게 합니다. 귀하게 대합니다. 적어도 함부로 대하지는 않게 됩니다.

4) 예를 갖추어 정성스럽게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다 보면,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됩니다. 그 마음에서 좋은 기운이 나옵니다. 그 기운이 사람을 움직이고 일을 이룹니다.

이러므로 약자일수록 더 예를 갖추어 더 정성스럽게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합니다.

#### 4. 경청

##### 1) 사회사업과 경청

경청만 잘해도 사회사업 관찮게 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 방법은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인데 경청하지 않으면 잘되기 어렵습니다. 사회사업은 잘 들어야 잘됩니다.

##### 2) 경청하는 법

① 말하는 사람이 잘되기 바라는 마음, 응원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부드러운 표정으로 눈을 맞추고 듣습니다.

② 화면을 보거나 자료를 이리저리 넘겨보지 않습니다. 기록하기보다 듣는 데 집중합니다.

누군가 드나들거나 지나가거나 다가와도, 무슨 소리가 나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눈을 돌리지 않고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면 설명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③ 말하는 사람이 약자일수록 더 예를 갖추어 더 정성스럽게 경청합니다. 어린이, 지적 약자나 자폐성 약자, 치매 증상이나 술기운이 있는 사람, 어눌한 사람이 말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듣는 자세, 이로써 사회사업가의 격이 크게 좌우됩니다.

특히 약자가 말할 때 예를 갖추어 정성껏 잘 들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회사업가이겠다 싶습니다.

참조 : 복지야성 75쪽 ‘경청 훈련’

## 5. 잘 부탁하기

1) 알아서 하라고 맡겨 버리지 않습니다.

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의논하지 않고 맡겨 버리면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이나 기관 정책에 반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험 지식 정보가 부족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② 약한 만큼 부족한 만큼 거들어 줍니다. 때때로 살펴서 조정 중재하거나 칭찬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책임한 처사에 가깝습니다. 남에게 일을 미루는 꼴로 보이거나 사람을 이용하려 든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2) 당사자나 지역사회에 다 부탁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나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각각입니다. 사람 사안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회사업은 당사자나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당사자나 지역사회가 하게 부탁할 뿐입니다.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준비 진행 평가까지, 또는 자원의 탐색부터 개발 신청 획득 활용까지... 과정을 세분하고 단계를 나누어서 우선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 6.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데 잘되지 않으면

### 1) 때를 살핍니다.

때가 아닌데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인짱아하거나 귀찮아합니다. 거부하거나 마지못해 응합니다. 참조 : 복지소학 36쪽 '사민이시'

① 사회사업에서 때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그럴 만한 관계가 되기 전에는 삼갑니다.

다만 명분과 진정성은 관계의 때를 초월하기도 합니다. 뜻을 잘 설명하고 성의정심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잘될 수 있습니다.

참조 : 복지소학 12쪽 '성의정심'

② 상대방의 관심 이해 의지 역량, 기색, 분위기를 살펴 때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 2) 자리를 살핍니다.

여럿이 모여 있는 데서 불특정 다수에게 말해도 될지 몇 명 또는 한 명씩 따로 만나 이야기해야 할지, 기관에서 이야기해도 될지 찾아가서 이야기해야 좋을지, 헤아려 봅니다.

### 3) 기타

① 잘 알고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정보가 충분한지, 좀 더 알아보거나 생각해 볼 일인지, 헤아려 알맞게 조치하고 묻거나 의논합니다.

② 과정을 세분하여 우선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부탁합니다.

③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김에 같이 하거나 조금 더하게 부탁합니다.

④ 다른 때 다른 일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참조 : 213쪽 '십중팔구가 호응하지 않을 때', 259쪽 '방법적 사고'

## 7.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사회사업에 문리가 트입니다.

처음에는 막막할지라도 한 명 두 명 만나다 보면, 이내 만나야 할 사람 만나게 되고 보아야 할 것 보게 되고 들어야 할 것 듣게 되고 알아야 할 것 알게 됩니다. 물을 것 묻게 되고 의논할 일 의논하게 됩니다. 부탁할 만한 일을 부탁할 만한 사람에게 부탁할 만한 때에 부탁하게 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이 문제 저 욕구, 이 자원 저 강점이 보이고 여기저기 길이 보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주선하고 수습할 수 있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통할 수 있게 됩니다. 갈수록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가 더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당사자에게 이런저런 강점과 가능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속에 도우려는 마음과 도울 힘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무궁한 자원과 기회와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다지 캐는 광부처럼, 황금 어장 만난 어부처럼, 당사자와 지역사회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는 복지를 넉쿨째 불러들이는 마법입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의 지혜 지식 정보 기술 재화가 따라오고 또 다른 사람이 연결됩니다. 돈은 물론이고 공간도 도구도 재료도 해결됩니다. 일이 술술 풀립니다.

다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까닭이 이런 효과 때문만은 아닙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사람답게 도우려는 정신의 발로입니다.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함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이고,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함은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 사회사업가

1) 사회사업가 정체성은 ‘사회사업가는 뭐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사회사업가는 사회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복지를 이루게 도우며 이로써 사회가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곳, 누구나 정붙이고 살 만한 곳이게 하는 사람입니다.

2) 사회사업가 정체성은 ‘사회사업가 노릇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사회사업가는 주선하고 거들어 주는 사람입니다.

사회사업가는 얻게 하고 주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사업 근본에 비추어 마땅히 여기는 사회사업가상이 이리합니다.

이는 사회사업가의 존재 이유와 존재 양식에 대한 당위 차원의 생각입니다. 사회사업가로서 제구실 바르게 잘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앞의 것의 내용은 사회사업 개념과 사회사업 이상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뒤의 것 곧 ‘주선하고 거들어 주는 사람, 얻게 하고 주게 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만 이야기합니다.



## 1. 주선하는 사람

사회사업가는 ‘주선하는’ 사람입니다.

1)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주선합니다.

그 실체는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로써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세웁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빛나고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칭찬 감사 공이 돌아가게 합니다.

2) 당사자와 사회의 것으로서 복지를 이루게 주선합니다.

그 실제 또한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사회사업은 대개 재주나 자원이 없어도 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당사자와 사회의 재주와 자원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재주나 자원이 없는 편이 좋은 경우가 많고, 있어도 쓰지 않아야 잘되는 일이 많습니다.

사회사업가가 자기 재주나 자원으로써 해 준다면 그 재주나 자원이 그의 그릇 그의 한계입니다. 참조 : 복지소학 46쪽 ‘턱자불기’

사회사업가가 복지를 이루어 줄 수도 있습니다. 사회사업가 쪽 재주나 자원으로써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거나 그렇게 하는 편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다만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할 일입니다. 사회사업가가 팔방미인 해결사 노릇을 일삼을 수는 없습니다.

## 2. 거들어 주는 사람

사회사업가는 약한 만큼 거들어 주는 사람입니다.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꺼져 가는 심지 같고 상한 갈대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 ‘비켜, 우리가 해 줄게.’ 해도 될까요?

사회사업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당사자나 지역사회가 잘 하지 않거나 잘못한다고, 그렇다고 대신 복지를 이루어 주는 노릇이 ‘사회사업가로서의’ 마땅찮습니다.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하고 사람 사는 사회는 약자와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회사업가는 꺼져 가는 심지를 돋우고 상한 갈대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니, 꺼져 간다고 덮어 버리거나 상했다고 꺾어 버리고 대신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회사업가는 약한 만큼 거들어 주는 사람이니, 대신 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2% 부족하면 2%만큼 거들어 주는 사람이니 98%까지 대신 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대신 해 주는 편이 나은 때도 있습니다.

다만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할 일입니다. 당사자나 지역사회가 떠맡기려 할지라도 그저 대신 해 줄 일이 아닙니다.

사회사업가가 당사자를 대신하고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복지를 이루어 주는 사람 ‘복지 대행업자’ 노릇을 일삼을 수는 없습니다.

### 3. 얻게 하는 사람

사회사업가는 당사자가 얻게 하는 사람입니다.

당사자의 자원으로써 복지를 이룸이 좋지만 다른 자원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원을 얻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점입니다.

당사자가 얻게 함이 좋습니다. 얻어다 준다면 당사자와 의논하여 심부름처럼 함이 좋습니다.

사회사업가가 줄 수도 있습니다. 주는 편이 최선인 때도 있습니다.

다만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할 일입니다. 사회사업가가 주는 노릇을 일삼을 수는 없습니다. 참조 : 109쪽 ‘주는 노릇’

사회사업가는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얻어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얻게 하는 사람입니다. 찾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찾게 돕는 사람이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라 알아보거나 배우게 돕는 사람입니다.

사회사업가가 주는 노릇 하다 보면 평지풍파 일어나기 쉽습니다.

안 받거나 못 받거나 덜 받는 사람은 배 아프고 아쉽고 섭섭하니 평지풍파이고, 받는 사람과 사이가 나빠지기도 하니 평지풍파입니다.

받는 사람 가운데 더러는 부끄럽게 여기니 평지풍파이고, 더러는 굽실거리거나 욕심부리거나 의존하려 드니 평지풍파입니다.

주는 사람은 알아주기 바라는 마음 자랑하려는 마음이 은근히 일어나니 평지풍파이고, 다음에 또 주어야 하고 더 주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생기니 평지풍파이고, 비교당하거나 시비에 휘말리니 평지풍파이고, 욕먹거나 위협을 받기도 하니 평지풍파입니다.

#### 4. 주게 하는 사람

사회사업가는 지역사회가 주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사업가는 대신하여 전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마다 제 마당 제 삶터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주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사업가를 통해서라도 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러는 받아들여 전해 주는 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할 일입니다.

사회사업가가 수도관이나 수도꼭지 노릇을 일삼을 수는 없습니다.

사회사업가가 지역사회의 것을 모아서 주다 보면,

마치 댐에 저수하여 수도를 통해 급수함으로써 시내가 마르고 우물이 썩어 버리듯 지역사회의 복지도 그러할 겁니다.

복지 저수지에 복지가 가득하고 복지 상수도 복지 급수대가 늘어 가지만 지역사회에는 복지가 흐르지 않게 될 겁니다.

참조 : 110쪽 '발로 일하는 사람', 111쪽 '구슬 꿰는 사람'

## 뒷이야기

### 1. 사회복지사와 사회사업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고 사회사업가는 사회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다 사회사업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만 사회사업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조 : 112쪽 ‘사회복지사와 사회사업가’

### 2. 사회사업가 정체성의 한계

어떤 정체성으로도 사회사업가만 그렇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을 돕는 직업이라면 같거나 비슷한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회사업가를 아우르기도 어렵습니다. 사회사업가 노릇이 사람사안 상황에 따라 너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정체성을 밝힘은 사회사업 사회사업가답게 제대로 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회사업가이기 때문입니다.

## 맺음말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바라보며 사람다움 사회다움으로부터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을 밝혀 그로써 사회사업 방법을 구하고 사회사업가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그 요점과 맥락이 이리합니다.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사람 사는 사회는 약자도 살 만해야 하고 약자와 더불어 살아야 하며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다움 사회다움’ 관점에서 보는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이고, 이런 사회사업이 중시하는 핵심 가치는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입니다.

이런 사회사업의 이상은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누구나 정붙이고 살 만한 사회이고, 그 철학은 복지가 보이지 않게 하고 사회 속에 흐르게 하며 바탕이 살게 하고 보편적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우려 할 때 특히 중점을 두어 살피게 되는 점은 생태 강점 관계, 곧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생태,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강점, 당사자의 인간관계와 지역사회 이웃 관계입니다.

이런 원리에서 나오는 방법이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기’이고 사회사업가 정체성은 주선하고 거들어 주는 사람, 얻게 하고 주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다움 사회다움으로부터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과 방법, 사회사업가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사회사업의 요결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으나 어느 것이든 가리키는 실체는 동일하니 곧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

---

사회사업가